

러시아 정보기관의 변천과 활동실태

1. 서 언

냉전 붕괴후 공산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러시아는 혼란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수화 경향과 더불어 구 소련연방의 부활을 희망하는 세력이나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도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정보기관 강화로 나타나는 보수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옐친대통령도 권력유지를 위하여 권력의 집중을 도모하는 등 보수화 경향을 띄고 있다.

보수화경향의 대표적 징표가 국익의 옹호와 외교역량의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기관의 권한 증가와 대통령중심의 운영방식이다.

2. 소련해체와 KGB의 변천

1991년 쿠데타 실패와 KGB 해체·약화

KGB(국가보안위원회 : 코미췌트 가스아르스토벤노이 베즈오파아스노스티)는 1991년 8월 19일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 실패를 계기로 고르바초프대통령은 그 주모자가 KGB의장 크류체코프임을 중시하여 그를 해임하고 개혁파인 바카체 전 내무상을 기용하였다.

이어 8월 28일에는 KGB 수뇌부 전원을 해임하여 간부회를 해체시키고 KGB 역할의 재정립·조직의 개편·쿠데타의 규명을 위해 국가특별위원회(의장 스테파신)를 설치하고 KGB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대통령령을 발하여 KGB의 해체작업에 착수하였다.

9월 30일에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 프리마코프위원장이 KGB 제1부의장에 취임하고 동시에 제1총국(대외정보조직)을 KGB에서 분리, 독립기관화하여 프리마코프 제1부의장으로 하여금 초대 제1총국 장관을 겸직하게 하였다.

<첩보국가 러시아>

러시아는 몽고로부터 첩보기술 배워

세계 최초로 간첩을 침략목적에 조직적으로 구사한 나라는 몽고이며 중세에 수백년 동안 몽고의 지배를 받아 온 러시아는 정보·모락공작의 효용성과 노하우를 체험적으로 배웠다. 제정 러시아의 국가비밀경찰 오프라나는 당시 세계 톱 레벨의 정보기관이었고 KGB는 그 적자이며 소련·러시아 지도자들은 이 전통을 존중해왔다.

소련 붕괴후 1991년의 가을에 KGB내의 거대군사조직인 국경경비대가 명목상 분리되고 구 KGB는 대외첩보담당인 SVR, 치안·방첩담당인 MBR, 전파도청·암호해독업무담당인 FAPSI 등 약 8개 부·국(部·局)으로 분할되어 약화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

KGB 그 실질은 엄존

크렘린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루비안카광장의 KGB본부 유료건축관광이 이루어지는 등 열린 KGB를 선전하였고 육체파 미인 미스 KGB가 출현하였으며 KGB 기밀문서가 서구제국에 판매되는 등 표면적으로는 해체된 듯한 인상을 주지만 이는 모두 KGB의 조직으로서의 생존책이며 계산된 연출에 지나지 않는다.

조직은 몇 개로 나뉘어졌으나 인원은 그대로 온존되었으며 구 KGB 제1총국을 그대로 인수한 SVR은 아프리카·중남미 등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국가에 배치된 요원을 철수시켜 구미 및 동아시아에 중점 배치한 실정이다. 특히 KGB요원들의 대인정보(HUMINT)에 강한 전통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더 중용·암약하는 KGB 출신들

통상적인 인사로 퇴직한 KGB 간부급은 그 인맥과 정보력을 살려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에 진출하였으며 그들이 만든 은행은 현재 러시아 제3위의 자금력을 과시하고 있다. 엘친정권에도 내무성·외무성을 비롯하여 경제계·언론계·학계 등에 KGB세력이 옛날과 변함없이 - 오히려 그 이상으로 - 암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리마코프외상이 젊은 시절 우수한 비밀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생생한 예이다. 그는 그 공으로 SVR장관에 발탁되어 그 후 외상이 되었다. KGB요원은 러시아에서 더 중용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10월 11일 KGB를 해체 → 5개 기관으로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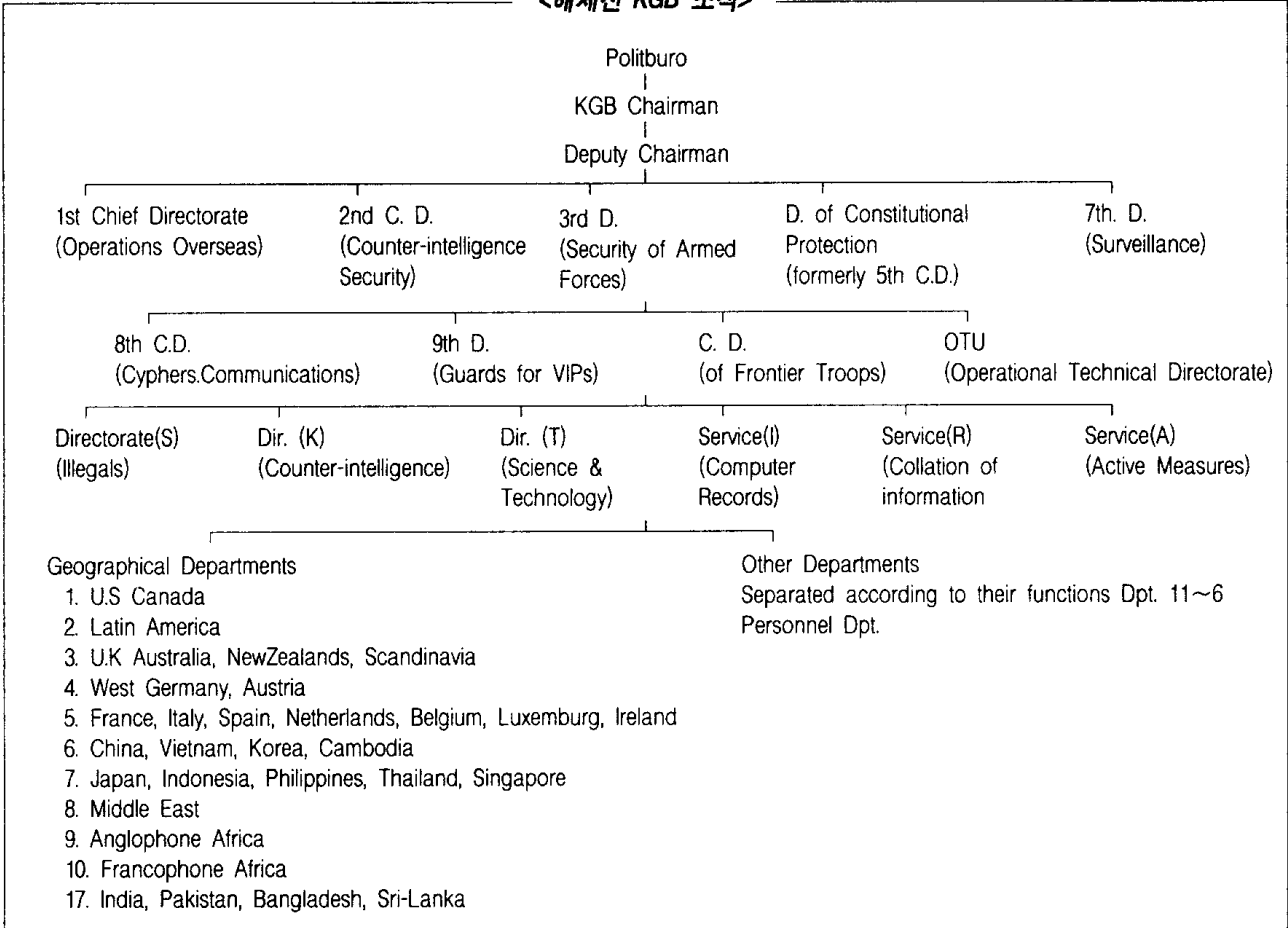
1991년 10월 11일 소련 임시 최고정책 결정기관인 국가평회는 KGB를 해체시켜 5개 조직으로 재편하였고 11. 6일 각 책임자들을 임명하여 러시아혁명 직후 1917년 12월 체카(반혁명단속비상위원회)를 전신으로 하여 체르진스키가 창설하였던 KGB는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① 연방중앙정보국 - 제1총국을 중심으로 분할, 대외첩보 담당, 인원은 약 15,000명, 프리마코프 KGB 제1총국장이 국장에 취임

② 공화국간(間) 보안국 - 제2총국을 중심으로 제3국(군방첩)·제6국(경제·산업분야 방첩)등의 일부를 분할·통합, 국내방첩 담당, 바카친 전 KGB 의장이 국장에 취임

③ 연방국경경비위원회 - 약 25만명의 국경경비 총국이 독립, 카리니첼코 전 KGB 부

<해체전 KGB 조직>



의장 겸 국경경비 총국장이 국장에 취임

④ 연방경비총국 - 제9국(요인경호) · 제15국(정부시설 등의 보안)을 중심으로 분할, 대통령 및 요인 경호 · 크렘린 등 정부시설의 경비 담당, KGB 특수부대 알파도 편입, 바루스 코프중장이 국장에 취임

⑤ 정부통신위원회 - 제8총국(통신 · 암호해독) · 제16국(통신도청 · Sigint) · KGB 정부통신부서 등을 중심으로 분할 · 창설한 비밀성이 높은 기관, 과학아카데미 회원 스타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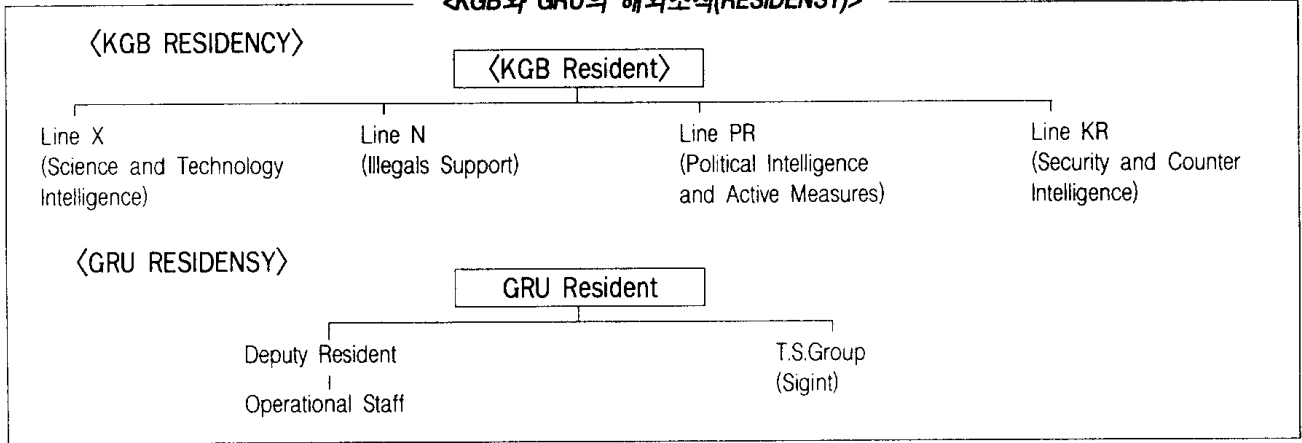
이토프중장이 장관에 취임

옐친 집권후의 재편

1991년 12월 러시아연방(CIS)의 발족과 더불어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공화국은 소련의 모든 권익을 인계 받아 러시아 연방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옐친은 KGB 후계기관도 러시아 연방에 인계시켜 재편하였다.

① 연방중앙정보국을 → 연방대외정보청(SVR)으로 1991년 12월 26일 연방중앙정보

<KGB와 GRU의 해외조직(RESIDENCY)>



국을 대외첩보 전문조직으로 재발족시켜 KGB의 대외조직을 계승하였으며 초대장관에 프리마코프가 취임하였다.

SVR(스투우지바 비네시네이 라즈베츠키) 프리마코프장관 주도로 스마트한 조직으로 개혁되었으며 소련시대의 해외거점을 축소정비하여 유지하였다.

② 공화국간보안국을 → 연방보안성(MBR)으로

엘친대통령은 1991년 12월 19일 대통령령으로 공화국간보안국과 소련(러시아) 내무성을 통합하여 국내치안과 방첩 등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 강대한 기관을 신설하고 초대장관에 바라리코프 소련 내무상을 임명하였다.

연방보안·내무성(MBVD)은 그러나 1992년 1월 18일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권력분립을 위협한다고 위헌판결을 하여 대통령령을 파기하였고 1992년 1월 24일 내무성을 분리하여 연방보안성(MBR : 미니이스체르스도바 베즈

오피아스노티 룿시이)을 창설하였으며 이후 MBR은 국경경비대를 흡수하였다가 다시 분리시켜 연방방첩청(FSK), 연방보안청(FSB)으로 변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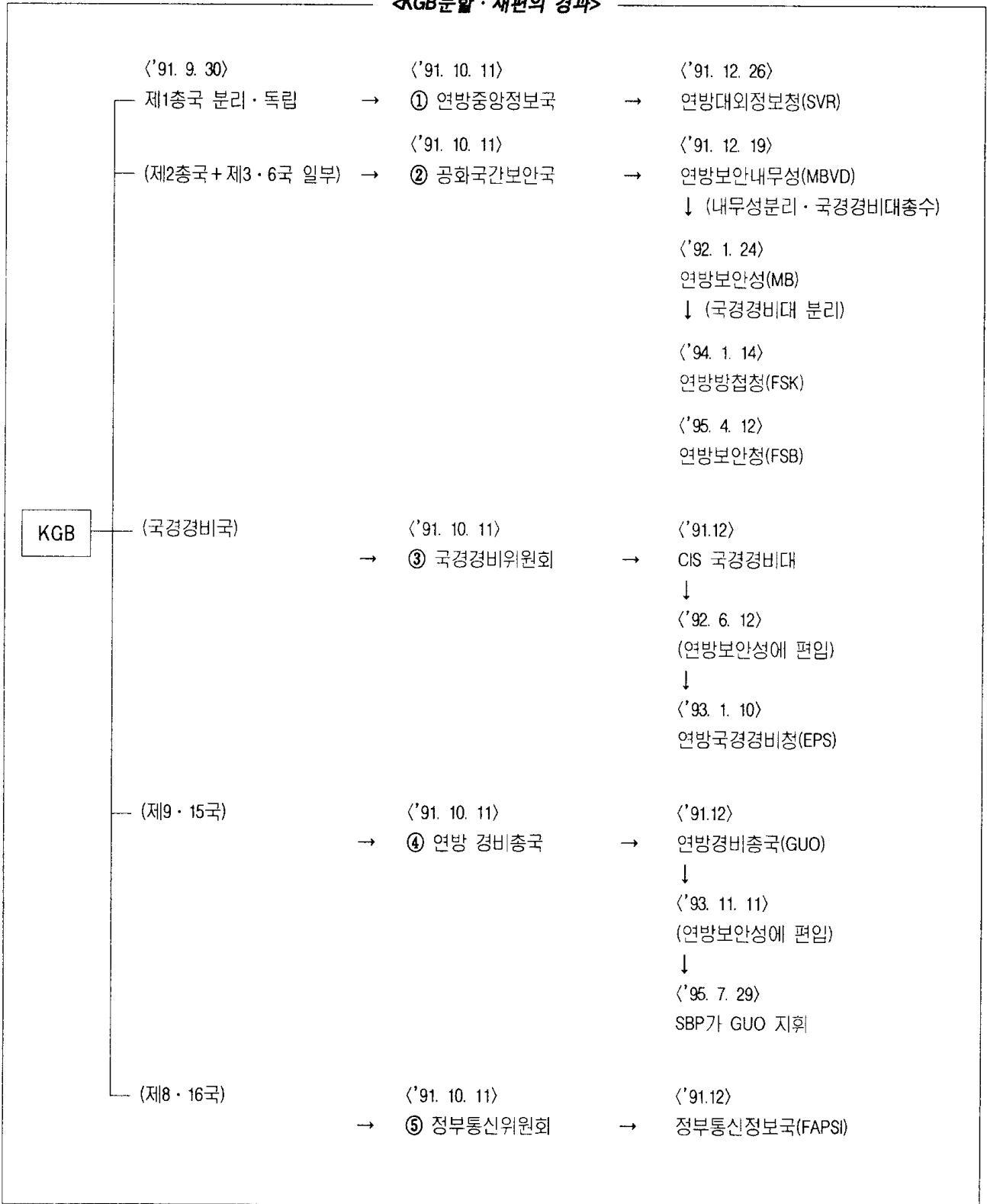
③ CIS 국경경비대는 → 러시아연방 국경경비청(EPS)으로 CIS 발족에 따라 국경경비위원회는 CIS 전체의 국경경비대로 재발족하였고 카리이첸코 사령관이 유임되었다.

그러나 각 국가가 독립된 국경선을 지니고 있어 러시아는 러시아 연방 국경경비대로 재편하였으며 러시아 국경경비대는 그 이후 연방보안성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독립하여 연방국경경비청(EPS)이 되었다.

④ 연방경비총국은 → 연방경비총국(GUO)으로 존치

연방경비총국은 1991년 10월 11일 KGB해체시의 상태 그대로 러시아에 인계되어 산하에 대통령 경호·크렘린 경비 등을 담당하는 부대, KGB시대부터의 특수임무부대, 정찰, 도

〈KGB분할·재편의 경과〉



청 전문가 등을 거느린 대통령 직할의 친위대 적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대통령 경호는 후에 대통령경호국(SBP)으로 독립하여 연방경비총국도 그 지휘하에 두었다.

⑤ 정부통신위원회를 → 정부통신정보국(FAPSI)으로 정부통신위원회는 정부통신정보국으로서 고도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비되었으며 스타로 보이토프 중장이 장관에 유임되었다.

3. KGB 후계기관의 조직현황

권한강화경향의 러시아 정보기관

1991년 12월 소련 붕괴후 정보기관의 강대

한 힘을 경계하던 엘친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KGB를 해체·재편하였으나 정치적 권력의 약화를 우려하여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시켜 왔고 정보·방첩기관을 직접 장악하고 지휘하고 있다.

가. 연방대외정보청(SVR)

KGB 제1총국, 연방중앙정보국을 계승하였으며 초대장관에 프리마코프가 취임하였고 KGB시대부터 축적된 기구·진용·정보를 인계 받았다.

KGB 제1총국(대외첩보국)을 기초로 창설하여 명칭만 변경되고 기구와 기능은 변화가 없었다.

총래 KGB 제1총국은 16개 부·국으로 편

<정보기관의 권력도구화 사례>

① 1992년 7월 러시아연방 대외첩보기관법의 발효와 더불어 SVR은 KGB와 마찬가지로 도청·신분위장·에이전트의 운용 등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② 1993년 10월 모스크바 소요사태시 MBR 내부에 반대통령·친의회파가 다수 있어 경제·정치개혁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 1993년 12월 FSK(연방방첩청 : 웨데라아리나야 스루우지바 콘트롤라즈베에츠키)로 개칭하고 MBR의 기능 중 조직범죄대책국을 내무성에, 수사국을 검찰청에 각각 이관시켜 방첩만을 담당하도록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1994년 1월 국경경비대도 EPS(연방국경경비청 : 웨데라아리나야 파그라니이치나야 스루우지바)로 개칭하여 대통령 직속기관화하였다.

○1994년 4월 정보기관 재편·강화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95년 2월 의회를 통과, 1995년 4월 12일 연방보안청의 조직에 관한 법이 통과됨과 더불어 연방방첩청(FSK)을 연방보안청(FSB : 웨데라아리나야 스루우지바 베즈오파아 스노스치)으로 개편하고 장관을 각료급으로 격상하였으며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외국정보기관에 침투하는 스파이활동, SVR과의 협력활동, 종전의 KGB가 갖고 있던 도청·영장없는 임검 등 강제수사권·자체구류시설·타 관청 및 기업의 신분증을 이용한 위장활동 등의 특별 임무와 권한을 명문화하였다.

<구 KGB 제1총국의 부서별 임무>

- <S국(비합법활동국)> - 외국에서의 비합법활동을 위해 위조경력을 이용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KGB요원의 선 발·교육훈련·지도·배치가 임무, 제1총국 최대의 국
- <T국(과학기술국)> - 과학기술정보를 담당, 핵무기·미사일·우주기술·바이오 테크놀러지 등 첨단기술을 서구 선진국에서 수집
- <K국(방첩국)> - 외국에서의 방첩에 관한 것을 비롯 외국의 정보·치안 관계자의 포섭과 이와 같은 기관의 동 향파악·침투공작을 수행
- <I기관부(정보자료특별부)> - 제1총국에 보고되는 정보의 분석·배포를 담당
- <A기관부(적극공작특별부)> - 위장공작을 포함한 Active Measures를 수행
- <R기관부> - 에이젠트운영에 관한 기록유지·분석·판단, 외국에서의 침투상황, 해외주재부 네트워크의 통계적 보고와 분석을 담당
- <지역부> - 해외 각 주재부의 정치정보라인(LINE PR)을 구성하는 요원의 배치·운용을 담당, 권한이 광범위하며 Active Measures를 비롯한 기타 정보활동도 수행하며 11개(제1~10, 17) 지역부로 편성
- <기능부> - 통신 및 무선의 운영과 기술개발 및 지원, 비밀작전용 도구·기술의 개발·지원, 암호 및 문서기록의 해독·관리, 인사 등을 담당

성되어 대외정보의 수집·분석, 공세적 대외 정보활동, 적극공작(Active Measures)을 임 무로 하였다.

SVR은 1992년 7월 대외정보활동의 근거를 규정한 러시아연방 대외첩보기관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1994년 1월 대통령 직속기관이 되었 고 초대장관 프리마코프가 1996년 1월 9일 외

상에 임명되어 1월 10일 KGB시대부터 첩보전 문가로 명성을 날린 제1부장관 토레브리코프 가 장관이 되었다.

SVR요원은 약 13,000명

1996년 1월 10일 공포되고 1월 17일 발효 된 러시아연방 대외첩보기관법 개정법에 의거

<SVR의 부서별 임무>

- <관리국> - 정보의 분석·평가를 담당하는 R국, 비합법활동을 담당하는 S국, 경제·기술정보를 담당하는 T국, 방 첩·역스파이를 담당하는 K국 등이 있고 주로 지원·관리를 수행
- <지역담당국> - 제1~5국, 제8~10국, 제17국, 제18국, 발트 3개국 담당국, CIS 담당국으로 나뉘며 한국·북한·중 국·일본·베트남·동아시아는 제5국 소관
- <해외주재조직> - 주재대표(Resident)·부대표 밑에 LINE PR(정치, 경제, 군사공작 및 정보 담당)·LINE KR(방첩, 보안, 역스파이, 정치망명 담당)·LINE N(비합법활동 지원 담당)·LINE X(과학기술정보 담당)로 구성

하여 SVR의 기반이 다져졌으며 SVR의 규모·조직·활동을 통하여 러시아의 대외첩보에 대한 강고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SVR의 인원은 해외주재원을 포함하여 약 13,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예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 조직은 장관 밑에 시체르바코프 제1부 장관이 있고 제1부장관 밑에 6명의 부장관이 있으며 관리국, 해외담당인 지역담당국을 비롯하여 각종 훈련 및 지원 시설과 지원부서가 있다.

나. 연방보안청(FSB)

(1) 조직개편 과정

(가) 보안·내무성(MBVD) 해체와 연방보안성(MBR) 발족

MBVD의 위헌판결

국내방첩과 치안전반을 담당하는 보안·내무성(MBVD)은 1991년 12월 19일의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으나 KGB 해체직후의 권력집중에 대한 비판으로 1992년 1월 18일 러시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위헌판결을 받아 해체되었다.

MBR로의 개편

이에 따라 1992년 1월 24일 내무성(MVD)을 분리하여 연방보안성(MBR)을 신설하였고

내무상에는 MBVD 제1차관 엘린이, MBR장관에는 MBVD 장관 비라니코프가 되었으며 MBR은 조직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능을 내무성과 공유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엘친대통령이 의도하는 강권(強勸)기관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나) 연방보안성(MBR) 해체와 연방방첩청(FSK) 발족

1993년 7월 27일 엘친대통령은 타지키스탄 분쟁시 이슬람 게릴라에 의한 러시아병사 25명 살해, 부정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 바라니코프 MBR장관을 해임하고 9월 18일 후임으로 고르시코 제1보안차관을 임명하였으나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던 의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부득이 의회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3년 10월 3일 모스크바 소요사태 발발직전에 바라니코프를 다시 의회측의 보안상에 임명하였다.

1993년 모스크바 소요를 계기로 FSK로 개편

1993년 10월 3일 엘친대통령이 무력으로 구 의회세력을 진압한 모스크바 소요사태시 의회측을 지지하여 반대통령투쟁을 한 자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 - MBR에 대한 내부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MBR이 엘친대통령의 의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지칭 - 과 12월 12일의 신의회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대약진한 것을 계기로

엘친대통령은 MBR이 국내정세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여 극우·보수·민족파의 약진이 허용되었고 따라서 MBR은 경제·정치개혁 추진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라 지적하고 12월 21일 러시아연방 보안성의 폐지 및 러시아연방 방첩청의 창설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MBR을 해체시키고 1994년 1월 11일 FSK(연방방첩청)를 신설하여 초대장관에 고르시코를 임명 - 고르시코는 1994년 2월에 해임되고 3월 3일 스테라신 부장관이 후임장관으로 취임 - 하였다.

FSK는 MBR의 조직범죄대책국을 내무성에, 수사국을 검찰청에

각각 이관하여 방첩활동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의견상으로는 그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을 뿐이다.

FSK는 대통령 직할기구로 권한 강대해져

그러나 FSK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며 그 장관도 각료급으로 격상되었고 조직은 구 소련의 경찰 및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의 대부분이 잔류하여 KGB세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어 강대한 조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FSK요원은 약 75,000명

1994년 1월 12일 스테라신 제1국 차장은 「FSK는 비밀첩보기관이다. 외국 비밀첩보기

관에 의한 첩보·파괴활동의 저지, 테러대책, 마약·무기 밀수 등의 적발, 국경지대에서의 작전에 종사한다. 그 활동은 전략목표방첩국, 조사방첩국, 경제국, 테러대책국등 각각 전문적인 작전본부가 지도하고 있다」고 하여 FSK의 조직내에는 각종의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전문팀」을 편성·운용하고 있으며 고도로 전문화·첨단화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FSK의 정원은 약 75,000명이며 국내방첩 및 테러대책에 있어서는 수사권이 있음은 물론 군 및 국경경비부대의 감시임무도 보유하고 1994년 12월에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수사국이 설치됨으로서 MBR시대의 권한도 되찾았다.

(다) 연방방첩청(FSK) 해체와 연방보안청(FSB) 발족

FSK는 국내방첩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그 성과를 거두었으나 엘친대통령은 체첸등의 국내분쟁이나 증가하는 조직범죄에의 대응, 나아가 급감하는 정권기반의 공고화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정보·권력기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FSK를 개편하였다.

정권유지를 위한 개편

1995년 2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연방보

안청법은 4월 3일 옐친대통령이 서명하고 4월 12일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발효되어 연방 방첩청(FSK)은 연방보안청(FSB)으로 개편되었다.

FSB는 대통령 직할기관으로서 FSB장관 - FSK 장관 스테파신이 옮겨 앉았으나 1995년 6월 체첸계릴라에 의한 인질사건으로 6월 30일 물러나고 7월 24일 바레스코프 연방경비총국장이 임명되었으며 바레스코프는 7월 13일 육군대장에 승진하고 8월 3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로 선출되어 그 지위가 한층 격상되었다 - 은 각료급이며 국내방첩·국내치안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 이외에 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보활동이 그 임무이다.

FSB는 KGB와 같은 권한 보유

FSB의 특징으로는 ① KGB의 해체로 분산되었던 권한의 재집중, ② 절대적인 수사권의 부여 등이 거론되고 있고 그 활동범위는 국내방첩, 대외정보활동, 범죄수사에 까지 미치고 있으며 대외정보활동에 있어서는 법률상 「국가안전보장, 경제, 과학기술, 국방의 각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외국의 정보수집을 담당하고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외국정보기관에 침입한다」고 하여 스파이활동을 명기하고 있다.

스파이활동을 법상 명료화

아울러 러시아에서는 SVR도 대외정보활

동을 하고 있으므로 법률은 「양자가 협력하여 대외정보활동을 수행할 것」도 규정하고 있어 대외정보활동의 강화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다.

한편 범죄수사권에 있어서는 ① 관청이나 시민의 주택에의 영장 없는 출입을 포함한 강제수사, ② 타관청·기업 등의 신분증명서를 이용한 수사원의 위장, ③ 시민에 대한 협력자의 모집·운영, ④ 독자적인 구류시설의 사용, ⑤ 특별임무부대의 설치 등이 공인되어 있어 KGB보다도 그 권한이 방대하며 비밀경찰의 부활 가능성도 있다고 정보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 조직현황

FSB는 장관 및 2명의 제1부장관, 6명의 부장관 밑에 민사·군사·경제 등의 방첩부문, 전략적 보안부문, 테러 및 조직범죄 대책부문 등이 있고 1995년 8월 11일 연방경비총국 소속특수부대 알파를 이관 받는 등 권력의 집중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부·국으로서는 국내방첩 담당 방첩작전관리국, 군방첩 담당 군사방첩관리국, 경제방첩 담당 경제방첩관리국, 테러대책국, 국제관계국, FSB 아카데미 등이 있다.

다. 연방국경경비청(EPС)

1992년 6월 12일 MBR 관할로 되었던 국경경비대는 1993년 12월 MBR의 해체에 따

라 1994년 1월 10일 연방행정기관의 구조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대통령직속의 러시아연방 국경경비청(EPS)이 되었다.

장관은 1993년 8월 러시아 육군참모총장 제1대리에서 국경경비대 사령관이 된 니코라 에프대장이 유임되었다.

EPS 요원은 약 20만명으로 연방군과 동일한 장비를 보유하며 각 국경관구로 편성되어 있고 국경관구마다 정찰부대를 두고 있다.

아울러 1996년 1월에 발효된 러시아연방 대외첩보기관법에 의거하여 대외정보활동이 인정되고 있어 국경경비청 독자의 정보기관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라. 정부통신정보국(FAPSI)

1992년 2월 19일 정부 특수통신회선 정보기관에 관한 연방법에 의하여 FAPSI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FAPSI의 대외첩보활동은

1992년 7월에 제정된 러시아연방 대외첩보기관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FAPSI는 1994년 1월 10일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직할기관이 되었고 장관에는 설립 당초부터 스타로보이토프중장이 임명되었으며 동 장관을 포함하여 과학아카데미 박사학위 취득자가 200명이 넘고 인원은 10만명 전후로 추산되고 있다.

마. 연방경비총국(GUO)

1991년 10월 창설 이래 바루스코프국장이 이끌고 있으며 그 산하에 있던 대통령 경호대는 1993년 11월 11일 대통령경호국으로 독립하였다.

조직은 크렘린 경비대, 제27 독립 자동차화 저격여단, 제119 공정연대 등의 군사조직이 있으며 대통령 직할대로서 인원은 약 25,000명이다.

<GRU(군 참모본부 정보총국)>

GRU 개요

GRU(그라이브노에 라즈벳도이바이체리노에 우푸라브테에네) 구 소련 정보기관의 양대축을 구성하여 활동 1917년 소련 건국당시부터 존재하였고 1920년경에 군 정보기관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소규모 조직으로 출발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과 종전후 동서냉전과정에서 KGB와 경쟁하는 규모로 발전

소련해체후 동향

KGB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존재 자체가 표면화되지 않아 국민감시·억압기관으로서의 공포·혐오대상이 되지 않고 순수한 군정보기관으로서 정치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소련해체후 조직은 온존되고 해체대상에서 제외

1991년 12월 소련해체후 창설된 CIS 군참모본부에 한때 이관되었으나 1992년 5월 7일 러시아연방이 독자적인 군을 창설하여 그라초프 국방상이 취임하고 CIS 각국도 독자적으로 군을 창설하여 1993년 6월 CIS 군사령부가 해체되고 CIS 군사협력조정사령부가 설치됨에 따라 GRU는 러시아 군 참모본부로 소속이관 GRU 총국장에는 1991년 11월 미하이로프대장에 이어 치모힌대장이 임명되었으나 1992년 8월에 라도긴중장이 취임

GRU의 임무

GRU는 국방성의 중앙지휘기관이자 군 참모부에 속한 정보기관으로서 외국군의 전략·전술, 무기·장비·기술· 및 관련 외국기업, 서구 선진국의 하이테크 과학·공업기밀 등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임무

소련해체후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자체기업 운영·무기매각 등 경제활동도 수행 1992년 7월에 제정된 러시아연방 대외첩보기관법에 의하여 GRU의 대외첩보활동이 인정되고 있으며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직할하고 의회가 통제

GRU의 조직

요원은 대사관 주재 무관, 외교관, 저널리스트, 학자로 위장하여 활동하며 인원은 약 12,000명 수준 조직은 작전적 정찰부문, 교육훈련부문, 관리국 및 후방지원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국외담당부서는 SVR과 마찬가지로 라인(LINE)이 존재

〈정보총국장 직할조직〉

- 우주정보국 - 정찰위성의 연구·개발, 독자위성발사기지 및 연구소 등의 운영
- 인사국 - 정보장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
- 운용기술국 - 무선기기·도청기·무기·독약등의 연구·개발
- 관리기술국 - 외국통화(금)·다이아몬드 등 고가품을 관리
- 대외관계국 - 러시아 군에 관한 외국인과의 관계를 지휘·감독
- 제1부 - 위장공작 담당으로 여권, 신분증명서 등을 수집
- 제8부 - GRU의 모든 서류의 암호화를 담당
- 기록보관부 - GRU기관원 기타 개인기록의 보존관리를 담당
- 회계부 - 국내에서의 합법적 회계사무를 담당

〈정보수집 관련 조직(제1총국장 감독)〉

- 제1국 -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역과 모로코에서의 정보활동
- 제2국 - 남북아메리카, 영국,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에서의 정보활동
- 제3국~제4국 -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정보활동
- 제5국 - 군관구, 해외 주류군집단등의 정보국활동에 대한 지휘·감독
- 제6국 - 외국의 정부, 군, 민간등의 통신의 도청을 담당

〈정보자료의 분석, 연구관련 조직(정보총국 주석 감독)〉

- 제7국 - NATO에 관한 사항의 취급과 그 활동경향의 분석·연구
- 제8국 - 전 세계 각국의 군사정세등을 분석·연구
- 제9국 - 방위산업, 설계기관과의 제휴에 의한 외국의 군사기술을 분석·연구
- 제10국 - 외국의 무기판매 감시에 의한 군사경제를 분석·연구
- 제11국 - 핵무기 보유국 등의 핵정책 전략목표·전략무기등을 분석·연구
- 정보연구소 - 공개·비공개 정보를 분석·연구
- 정보지휘소 - 에이전트·비합법 공작원등의 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

GRU의 활동

GRU의 대외정보활동은 군사적 전략부문의 정보활동으로서 소련시대의 상태 그대로를 인계
그러나 최근 GRU는 군사부문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경제·첨단과학기술·정치정세 등의 정보수집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GRU의 전통적 정보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
소련시대부터 KGB와 라이벌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KGB의 해체로 GRU의 역량이 주목받고 있으며 고도로 훈련
된 우수한 인재의 등용에 주력하여 러시아군의 사기저하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자부심도 상당한 편이라는 평가
SVR이 마피아 기업 등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GRU는 이러한 관계를 철저히 배제

바루스코프국장은 1995년 7월 24일 FSB
장관에 임명되었고 7월 29일 후임에 크라피빈
중장이 취임하였으나 같은 날 GUO는 대통령
경호국의 관할로 들어갔다.

바. 대통령경호국(SBP)

1993년 11월 11일 GUO로부터 독립한
SBP는 코르진코프국장의 지휘하에 대통령
친위부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자
의 군대·정보기관 등을 보유한 강대한 조직
으로 발전하였다.

SBP의 인원은 GUO를 포함하여 약 40,000
명으로 보고 있다.

4. 러시아의 대외정보활동 양상

가. SVR

SVR은 KGB의 해외주재기관 및 그 정보
망을 인계하였으며 그 활동은 종래와 같이 대
상국의 정치·경제·군사·사회정세 등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다기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테러·조직범죄·국제
적 무기밀수·핵확산 등에 관한 정보수집도
중요시하고 있다.

활동은 더 교묘해져

활동방법은 KGB시대보다 신중해져 서구
선진제국에 접근하려는 러시아정부의 의도를

반영하여 그 활동시 마이너스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나 KGB시절 Active Measures를 담당하던 A기관부는 지원관리국(MS : Support Measures)으로 개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직이 강화되어 보다 교묘한 지원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정보를 중시

또한 러시아의 경제재건을 위하여 경제분야 정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통한 공작은 러시아 마피아를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전직 KGB요원이 경영하는 기업도 이용된다고 한다.

SVR의 가장 비밀스런 활동은 S국이 관리하고 해외에서의 활동은 LINE N이 지원하는 비합법 활동이며 KGB가 해체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나. FSB

FSB의 대외정보활동은 1995년 4월에 발효된 연방보안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SVR과 경합되고 있어 FSB·SVR의 협력이 규정되고 있음에도 그 관계는 양호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FSB는 바루스코프장관이 취임한 후 점점 그 권한이 강대해져 KGB부활의 중심적 기관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금후 SVR의 해외거점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대외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러시아 국내의 경제방첩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외국에서의 역스파이활동이나 정보수집 활동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FSB의 입장에 비추어 독자적인 FSB 해외거점구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FSB가 조직범죄수사나 국제테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외국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협력관계구축을 토대로 역스파이활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정보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 EPS의 활동

EPS의 대외정보활동은 1996년 1월에 개정된 러시아연방 대외첩보기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성격상 대외정찰활동은 계속되어 왔다.

종래에는 방첩적 성격의 국경부근에서의 보안, 군사관련 정보의 수집에 한정되었으나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외거점은 없으나 선박이나 전자기기 등 전문적 기술의 도입, 국경 인접국가에의 출입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SVR과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GRU와는 군사적 관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

라. FAPSI

FAPSI는 세계 각지에 정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활동이 고도의 비밀성을 띄고 있어 분명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암호통신·극비정보의 전달·중요통신의 도청과 해독을 하고 있다.

더욱이 FAPSI는 러시아 국내에서의 정보

통신시설 인허가권을 통하여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진출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해외주재기관은 해외 러시아공관을 중심으로 한 통신시설 설치·운영부서이며 그 요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기술자이다.